

# “위로 공간 vs 범죄 유발”...우울증 갤러리 해법은?

### 공감·위로 목적 개설 불구 극단 선택·범죄 모의 공간 변질 ‘폐쇄’ 주장 속 ‘상담·적절한 규제 등 대안 마련’ 목소리도

공감과 위안을 목적으로 개설된 ‘우울증 갤러리’가 극단적 선택 및 범죄 모의의 장소로 변질되면서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폐쇄 시 다른 커뮤니티로 옮겨 가는 ‘풍선 효과’ 등을 우려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

넷 커뮤니티 디자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유인, 음주·마약을 권하고 성착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신림캠’ 멤버 가운데 20대 A씨가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와 올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집으로 불러 마약을 투약하고 협박한 혐의(마약류관

리법 및 실종아동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가 속한 신림캠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나 숙식을 함께 하는 이들의 모임으로, 성착취 범행 여부 등 의혹도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이와 비슷하게 우울증 갤러리를 고리로 모인 ‘신대방캠’ 멤버 4명도 입건해 실종아동법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 혐의를 살피고 있으며,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앞서 10대들의 극단적 선택에도 우울증 갤러리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

기된 바 있다.

지난달 5일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구조된 일이 있는가 하면 4월16일 서울 강남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학생의 숨진 배경에 우울증 갤러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일들이 잇따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해당 갤러리의 존폐와 해법을 두고 토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커뮤니티가 자살 유발과 유도 아닌 공감과 위안을 목적으로

개설된 만큼, 폐지보다는 ‘자율규제 강화’ 쪽으로 기울면서 잇따른 사고에 대한 해법은 도출되지 못한 상태다.

실제 이날에도 해당 갤러리에는 ‘자살’, ‘죽음’ 등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루밍 범죄로부터 10대를 보호함과 동시에 심리치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수경연합재개발원 학교폭력·소년법 담당교수는 “자살 예방”에 앞서 ‘우울 치료·예방’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인 가능적 시스템이 절실하다”며 “청소년들의 우울함이 불안으로 연결돼 자해나 자살로 이어지는 통계가 많은 만큼, 심리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상담 창구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루밍 범죄의 특성은 위기를 겪는 소아·청소년들에게 친밀함으로 접근해 우대를 쌓고 강요·협박을 하는 형태로 이어진다”며 “우울증 갤러리처럼 온라인으로 사냥감을 찾는 환경이 불가능하도록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사이트 규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복기자



대입 정보박람회 수험생에게 필요한 대입 실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24학년도 대입 정보박람회'가 8일 나주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렸다. 이날 박람회에는 전국 74개 대학이 참여, 학생·학부모들이 대학별 입학사정관들과 대면 상담을 했다. /김애리기자

## 청소년에 필로폰 투약·마약 밀수...14명 구속기소

### 내국인 5명·불법체류자 9명...안경집·약통 등 은닉수법 다양

광주에서 청소년을 유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신종마약을 밀수한 20대 등 마약공급사범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8일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병,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광주·전남지역 수사실무협의체를 구축한 후 마약 밀수·유통범죄를 집중 수사에 마약공급사범 총 1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미성년자인 A(17·여)양의 필로폰 투약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 후 A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B(23)씨를 검거, 최근 구속기소했다. B씨는 필로폰을 구입해 A양을 모텔로 데

려가 2차례 투약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

A양은 미성년자로 지난달 12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또 합성마약인 아바(YAB A) 2만4천179정(시가 4억3천522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마약수거책 2명을 지난 4월 검거, 모바일 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배후 주범과 상선 등 태국인 마약 밀수조직 8명을 지난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로 신원인 불확실하고 대포폰으로 추적을 피하면서 SNS를 이용해 속칭 ‘단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

울리 5년 간 도주한 필로폰 내국인 유통사범을 끈질기게 추적해 지난 3월28일 검거하고 경찰과의 협조로 상선과 하선 2명을 추가 검거해 총 3명을 구속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찰,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청소년 상대 마약류 공급사범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중형을 구형하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 ‘유신 저항’ 김남주시인 등 ‘정신적 손배’ 승소

### 법원 “경찰 불법 체포·구금·고문 인정...42명에 31억 배상”

19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를 비판하며 저항운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던 고(故) 김남주시인과 당시 전남대생들,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심을 통해 2021년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과 그 가족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고, 이번 판결을 통해 원고 42명이 총 31억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4부(나경 부장판사)는 이들을 유신유족 9명, 당시 전남대

생이었던 이강·김정길·김용래·이평의·윤덕연씨, 이들의 가족 등 총 4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해 위법한 재판을 받게 해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구금됐고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된 점, 가족까지 간첩이라는 오명으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0여년 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

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9.9-44.2%를 인정했다. 상속 관계 및 비율, 정부의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기대 수익, 지연이자, 위자료 등을 합산해 1인당 300만~11억5천970만원 등 총 3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부당한 판결로 대학에서 제적되고 교원 자격 취득 후에도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 2명은 50여년 간의 지연손해금 6억~7억 원을 포함해 각각 12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이들 김남주 시인 등은 1973년 3월부터 4월 사이 수사기관에 각각 167~284일 동안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오복기자

## 만취 행인 유심집 흠쳐 수천만원 빼낸 30대 ‘달미’

만취한 행인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흠쳐 수천만원을 빼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께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A(32)씨는 만취해 쓰러져 있는 B씨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낸 뒤 2천400여만원을 흠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입건됐다.

A씨는 흠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뒤 모바일 은행계좌를 이용, 금거래소를 통해 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고

B씨의 명의로 대출시도를 했다.

또 B씨의 지갑과 신분증, 외제차 키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남구 백운동 인근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후 920여만원의 골드바를 회수했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성학기자

##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에 대해 여당 차원의 시민단체 탄압 행위라고 규탄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광주 전남지역 87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시민단체를 정상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위원회를 발족해 극우단체 등과 합작하고 시민단체 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강제동원시민모임을 ‘과거사 비즈니스 단체’, ‘조폭’ 등으로 표현해 비방과 모략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일제동원 해법과 관련된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여당이 직접 나서 시민단체를 탄압, 국면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태호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흠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sup>2</sup>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sup>3</sup>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